

발행처	인간신사	신조	국립	주
편집장	집·국·장	박·신·서	방·영·관	장·민·훈
편집인	집·국·장	박·신·서	방·영·관	장·민·훈
편집인	집·국·장	박·신·서	방·영·관	장·민·훈

사람은 적고 재물이 많을 때 행상들이 무서운 곳을 피하듯이 탐욕의 적이 목숨을 해치기에 지혜 있는 이는 탐욕을 버리나니.
(法句經·약행품 149절)

제 1042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 3 종우번호(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3월21일 (수요일) 【1】

등록금 협상 결렬로 '혼미' 거듭

학교 9.8% - 학생 7% 주장으로 평행선 학교당국 등록시한 쫓겨 일방적 고지서 발부 할듯

9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협상이 학교측 9.8%선과 학생측 7%선이 팽팽히 맞서 결국 다짐을 찾지 못하고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될것 같다.

학교당국과 학생회는 오늘(21일) 등록금 최종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에 오전 7시 50분부터 학교측 대표로 이원준(총장)·김정현(사학 4), 학자부위원장 강병득(미술 4) 등 10여 명이 분관(2층 기획조정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학교당국과 학생대표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등록금인상률만 남겨놓고 등록금 운영에 관한 8가지 합의사항 도출까지 이르렀으나 학교당국의 9.8% 고수로 당초 5%인상에서 7%까지 유연성을 보인 학생측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협상결렬직전에 합의되

었던 내용은 스에-결산을 공개한다. 단 예산은 3월중에, 결산은 5월중에 중앙도서관 등 2곳에 일주일간 공개한다. 스에산 편성지침서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당국의 예산을 편성한다. 스에산 88학년도 학자부 8개합의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한다. 단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위원회 모임을 갖는다. 스에산에서 교과과정 개편은 현행대로 실시한다. 스에산교과위에 교무처장은 사안에 따라 참석한다. 스에산교과위의 예산운영과 학술진흥비는 교무처에서 관리한다. 스에산부처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준하여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스에산은 사학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금 확보와 재단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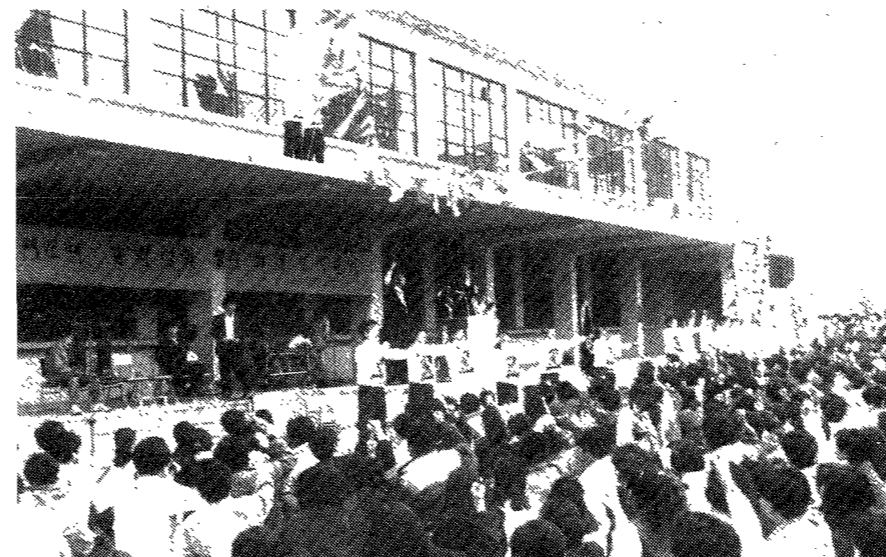
이번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항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측은 지난해 결산에 준하여 하며 학교측은 불가상승률과 교직원 임금인상 및 신규사업등을 들어 본예산에 준하여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협상태이상은 지난 20일 새벽 0시 30분부터 호텔 소피텔(309호)에서 학생대표와 예산담당 직원이 가예산을 비교 검토한 다음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 학생회는 동결에서 5% 인상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당초 학교에서 설정한 가예산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축비 28억, 병원관리실 설계비 8억, 병원 기계구입비 21억, 모자란 매입비 5억, 자가용 구입비 2천만원등의 고정자산 시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외되기로 했으나 협상결렬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13.96%인상을 주장해온 학교측과 89년도 결산 90년도 가예산및 세부사용내역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동결을 주장해온 학생회는 지난해 12월부터 40여일간 10차례가 넘는 협상을 거쳤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학생회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적 총학 건설위한 정책대결 '가열'

총학선거...유세-공개토론회 열려

'제22대 총학생회 및 제6대 총학생회 정부위원장 임후보자 1차유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학생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총대의원회 부의장 문중호(정의4)군의 사회로 열린 이날 유세는 기호2번 권오철(화력4)·이진현(경영4)·조가면(국문4)·"전진하는 청년전사여, 노학동맹의 기치아래 총진군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반제반파쇼투쟁으로 민중대연합결성을 주장하고 89년 학자부활동의 저조원인으로 투쟁전망과 계획결연을 지적했다.

또, 다원주의적 학생회건설을 위해 민주집중제실현을 역설했다.

이어 기호1번 이규민(국문4)·이진현(아간강좌·무역4)·조는 "미계국주의·친미파쇼연립계파"를 외치며 동안, 3당통합은 친미파쇼세력과 마노 일당의

정치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자유왕래추진 일천만서명운동' '5월 평주총회사수' '방북교류추진위원회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기호1번조는 "중국TV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에 단독임후보한 김윤향(선학4)·권미경(국문4)조는

"여성해방·노동해방의 새날을 위해 동학의 2천4백여 청년여성전사들과 함께 광명동의 새날을 열어가자"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2차유세는 오는 22일 오후 5시 동관앞에서 열리며 이어 공개토론회가 도서관앞에서, 3차유세는 오는 27일 오후 1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일문, 경제, 역교, 지교과 등의 교과위 사해보고가 있었고, 이어 '학문과 사상'이란 제하의 교과위기관지 발간을 논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르면 내로 결정하기로 했다.

'로동신문' 열람저조 3달 동안 15명뿐

지난해 1월부터 중앙 도서관 2층 특수자료실에서 공개 열람되고있는 북한 로동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3달동안 이용자는 단 15명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학년도 1월1일부터 열람이 허용된 이 신문의 지난해 이용자는 총 4백45명으로 하루평균 1.2명이 열람했다.

제 22대 총학 후보 좌담 (4면)

수습기자시험 22일 오후 5시

일반적으로 단종사에서 제 오조 하면 흥인대사를 말하게 된다. 조당집에 흥인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당대의 많은 호국들이 운집 하였으며 출가승과 제가신도 가운데 교화를 받은 사람이 심중 팔구 었다고 한다. 그 수가 칠백여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흥인 문하에서 수행을 하였고 기복하고 있다.

이 칠백 문도 가운데 신수상좌와 도명장군이 뛰어난 제자로 꼽히고 있었다. 그런데 오조스님은 후원에서 병이나 쟁고 있던 노행자(후일 육조)에게 의발을 전수하고 남쪽으로 가도록 일렀다. 스승에게 받은 의발을 소중히 짊어지고 어디에 쫓가나 보니 유유령에 이르렀다. 숨기쁘게 따라 오던 도명장군은 위협한다. 스승의 의발을 장군이 갖고자 함

보수

있었다. 노행자는 의발을 바위위에 놓고 "이 옷과 발우는 오직 믿음으로 나타낸것인데, 어찌 힘으로 될 일이었소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시오"라고 계곡이 찌렁 찌렁 울리게 꾸짖었다. 도명은

불사선 불사악

혹 하여 들어 보니 큰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 번득 도명장군의 전신에 전율이 와 장군이 육조대사에게 말 하였다. "저는 의발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육조대사는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 때를 당하여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면목인가?"하자 도명은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불사선사악의 화두는 비단 도명장군에게만 한 말이 아닐 것이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선악을 판단하게 한 것일 것이다. 세상사는 거의 상대적인 것이다. 선이 아니면 악이고, 깨달음이 아니면 미혹함, 진이 아니면 위, 아름다움이 아니면 추함, 자혜가 아니면 무명, 보제가 아니면 번뇌가 말이다.

힘들게 밭을 갈고있는 소가 측은 하여 한 스님이 「밭 보제하거라, 하니, 소는 응수하여 「너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사교의 초월을 느낀다.

崔昌述

동대신문 40주년기념 / 동국정신선양 기획광고 ②

한줄기 눈부신 東國의 빛

가장 일찍 일어난 빛들이
아름을 사루며
새벽으로 달려온다.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모향산에서
지리산에서 금강산에서 설악산에서

어디서 왔는가, 그대 싱그러운 젊은이들.
진리와 정의와 사랑밖에 모르는
세상을 담아도 남을만큼 넉넉한
맑고 큰 눈 눈...눈빛 눈빛 눈빛들.

빛이 모인다.
가장 일찍 일어난 그대들의 나라,
동쪽나라에 아침이 온다.

社說

등록금...인상률만 남았다

9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협상이 인상률 8%인 내외에서 금명간 타결될 전망이다.

문교부 등록금협상을 20일 남짓된 급박한 상황에서 그간 40여일간의 난항 끝에 등록금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학교당국과 학생대표에게 먼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등록금이 얼마 인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일차원적 수준의 논의에서 한층 진일보, 이후 학교발전의 전망을 내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난 88년도 학자부 87%의 합의 이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 그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상은 예·결산의 공개, 교수·학생·직원·재단 4자도 구성하는 '제원조정위원회' 구성, 학자부 8개항 실현을 위한 각 위원회 논의 등 오는 4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것들의 총체적 합의로써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려되는 점은 학교당국의 자세로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申願柱총장서리 체제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즉 학교당국은 학생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과 재확인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다 등록금협상이 얼마남지 않다 그대서야 비로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생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지극까지의 관행을 또다시 드러내 보였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에서 제기됐듯이 문교부의 대사업대학 지원책 확대를 위해 전국대학 차원의 공동건의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거둬들이면서도 정부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협상결과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낀 것은 상호간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였다.

학교당국은 이후 성실한 수행모습을 보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이상으로 책정된 예산은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 절감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운영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등록금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시설부담을 학생진흥비에 쓰여지는 등록금 사용은 없어야 한다. 진리탐구의 장으로서 대학이 존재한다면 상이담은 당연히 학문의 축적과 발전을 위해 재정의 대부분이 쓰여져야 한다.

'일방적 신규교수채용'은 합의위반

'교과과정위원회'가 '흔들', '뒤흔' 거뒀던 교과위는 민족적·민주적, 통일지향적으로 교과정책을 제정하고 인맥과 파벌에 얽혀있지 않은 양심적인 신규교수 초빙을 위해 합의하였다. 그야말로 지난 88년 12월 7일 학원자주제를 향한 각고의 136일 만에 타결된 8개항중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된 지 만 1년6개월이 채되지 않은 현재, 조국이 거의 와해된 중앙과 각 단위 이곳 저곳에서 사업주체들의 태만, 교수측과 학생측의 불협화음, 학교당국에 의한 원칙의 파기가 횡행하고 있다.

경제학과의 경우, 신규교수채용과 관련된 공개강의에서 학생들이 뽑은 신규교수와 교수들이 뽑은 신규 교수수가 맞지 않자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당국은 중앙교과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신규교수 채용을 '사대적 행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일부과의 경우와 교과위의 안전을 합의한 것 처럼 학교당국에 신규교수 채용을 요청했으나 학교당국의 독단적 처사로 과

교과위에 제정도 요구하지 않은채 채용거부를 했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당국의 행위를 권위주의적인 학교행정의 반영이라고 본다. 우리는 차후로 학교당국의 교과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철저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 하나 목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지난해 10월말 중앙교과위의 교수대표 3인이 당시 중앙에 사표를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대표3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교과위 사업이 학생들의 실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 현재는 각과에서 사업의 담당자들이 제물을 꺾어 학생대표와 교수대표가 없는 과도 부처기사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교과위의 학생대표 3인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학원자주의 '꽃'이 시들어 버렸다.

우리는 교수회의가 그간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중앙교과위 교수대표 3인을 빠른 시일내에 선출, 교과위의 정상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교과위'가 하루속히 새 뜻을 달고 학문과 상상의 자유라는 망명대회를 향해 힘찬 항진을 하기를 제심 촉구한다.

동국漫評
임지성

◇개구멍도 단일화 해야지!

"노동자들의 최소한 욕구까지 묵살"

엿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시간의 흐름속에 자연과 인간,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愼 順 範 (국회의원·평민당)

그러나 오늘도 민중의 가슴에는 철벽으로 내려치는 듯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70년대 초 "노동3권 보장하라"며 자신의 온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뇌리에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신화해간지 어언 20여년을 바라보다. 강산이 변해도 2년은 변했을까만 시간이 흐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건이 그만큼 변화되고 노동자들이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고있는 사회가 되었는가? '전태일 열사' 이후 최근의 '박종만 열사'까지 수많은 노동열사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위해 피를 뿌리며 쓰러져왔다. 작업장에서, 거리에서 어느 한 곳 그들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 해도 바뀌는 아닐 것이다. 그 결실이라 할까. 올 초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노동

자들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면은 영구적인 '일당독재'로 나아가는 기본수순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동력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때, 현 정권의 '일당독재'는 일장춘몽이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을 현 정권은 불을 보듯 뻔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시하는 과거 철도노동자들과 지하철노조의 파업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후사당 하에, 불법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의 조지개입, 임금인상액

첫째는,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노동관계법을 근거로 한 법적·제도적 탄압이다. 국가보안법·안기법·집시법등도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방편으로 흔히 악용되고 있다.

이런 특수적인 법률조항들이 공권력의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노조간부의 대량 구속, 무차별한 공권력 투입등의 물리적 탄압이 그것이다. 실정(失政)에 의한 경제위기에 경기침체를 모두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도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인 것이다. 바로 얼마전 '전노협'위원장인 단병호씨가 경찰에 잡혀있을 때 그는 "전노협은 위원장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왜곡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의식이 급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조차 저버린 갑압적인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하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강경탄압에 대한 강경투쟁의 결과는 누구도 막지 못할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것

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도박성을 지니고 있어 반인간적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우리 범민족민중세력은 역사의 파수꾼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를 다해야 할 것이다.

'강경탄압'에 대한 '강경투쟁'은 당연 경기침체의 노동운동전기는 어불성설

제동을 노동정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도대체 현 정권은 지금의 노동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권이 과연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니다. 현 정권은 지금의 노동문제의 본

질은 무엇인가? 왜곡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의식이 급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조차 저버린 갑압적인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하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강경탄압에 대한 강경투쟁의 결과는 누구도 막지 못할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것

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도박성을 지니고 있어 반인간적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우리 범민족민중세력은 역사의 파수꾼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를 다해야 할 것이다.

통약 기사적

학부위 사업 세심한 배려 필요

단독 백원으로 신뢰 잃어서야

후문앞으로 등록을 하다보면 짜증나는 일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겨울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된 이후 더욱 늘어난 차를 때문에 통행에 더욱 지장을 주게 되었다.

유기용 (법과대·법학과)

우리는 대학은 '진실의 상아탑'이나, '지성의 산지'니 하는 표현으로 대신되기도 하지만 '대자보의 문화' 또한 간과할 수 없을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의 통약들 둘러 보면 '대자보의 문화'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안정현 (사회대·사회학과)

수요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하다. '올바른 대자보문화'는 대학의 모습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발전기금이 게시판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학과에서는 무수한 벽지가 나뒹굴고 단과대학회관건조 등 동분서주, 각종 계서물로 캠퍼스가 온통 뒤덮여 제대로 드러난 벽을 볼수조차 없다. 통행로까지 붙은 각종 자보들은 학생들의 발걸음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통약기사적은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농민협회 문고개설'에 협조를

농민협회 문고개설'에 협조를

85년 소몰이 부쟁이후 현재 88년 11월부경과 89년 2월부경을 거치며 90년에는 농민운동의 전국적 단일 조직인 전국 농민회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8년 이후 우리 청년학생들은 농학연대의 기치아래 대중적 농촌 활동을 수행해왔다. 농학을 통하여 청년 학생들은 진정한 근로대중의 힘과 진정한 땅의 의미를 배우며 그 동안의 농민 형제들은 관계연대로 의하여 애국되어진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일정 정도 획득할수 있었

계속 관심을 부여

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제원·제원지역 농민회와의 결함을 통하여 농학연대의 성과를 일정 정도 담보해 낼수 있었다. 올해 제원·제원 농민회와의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결성과 더불어 농민회 회원의 지질 향상과 사상 확립을 위하여 농민회 차원에서 문고개설 하였으나 도서의 양적 부재로 인한 어려움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대중적 농촌 활동을 수행한지도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다. 우리가 2년동안 제원·제원 지역의 농학을 통하여 얻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통약기사적은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통약기사적은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조기 졸업 신청 접수

1990학년도 조기졸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신청서 접수기간: 1990.3.26(월)~3.30(금)
2.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한다.
3. 신청자격
 - 가. 1981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7학기 등록을 필한 자
 - 나. 4학년 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이상이고 7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 취득이 가능할 자

부전공이수 신청접수

1990학년도 부전공이수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신청서 접수기간: 1990.3.26(월)~3.30(금)
2. 신청방법: 부전공이수 신청서에 부전공 학과장의 승인 날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한다.
3. 신청자격: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은 1980학년도 입학자를 포함)로 현재 2학년 재학생 및 금액까지 2학년 복학자

1990년 3월 16일
교무처장

'90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 지원자격: 4년제대학-1학년('88.1.1~'74.1.1출생자), 2학년('87.1.1~'73.1.1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0.3.10~5.20(학군단 내부)
 -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 검사서)
·지원서(사진 첨부) 및 서약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사진(4×5cm) ... 3배
-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사
- 합격자 발표: '90.8.25
- 특전
 -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 및 처우)

육군본부

구내우체국 이용안내

- ◇온라인 전자종합통장
 - 전국 최대의 온라인망을 갖고있어 전국 어디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납부
 - 송금시 15자이내의 통신문 송달 가능
- ◇자유저축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높은 금리가 보장됩니다.
 - 적용이율: 3개월미만: 연5%, 3~6개월: 연8%, 6개월이상: 연11%
- ◇세금·공과금 수납
 - 국세, 지방세(주민세 및 자동차세, 재산세),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방범비등
- ◇특산품 주문판매
 -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산값으로 전국 어느곳에나 직접 배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올름도 오직, 안도길, 순참고추장 등
- ◇민원우편제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민 증명서류 등을 해당기관에 직접 가지않고 우편을 통하여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 졸업증명서 등

※문의전화: 서울 273-1005, 273-6507
경주 42-6400, 43-2550
동국대학교 우체국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에게!

학자금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에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매월조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장기학자금	85.8.1 이전 대출차 85.8.1 이후 대출차 89.12.21 이후 대출차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 납입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제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 원금납입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의 제도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방적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분 감안 하시기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개혁은 긍정평가하나 수용에는 부정적

함으로써 '전면적 개혁노선'(=형가리, 동독)과 공산당의 주도성이 기본적으로 관철되면서 정치적 개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소비에트 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약간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궁극적인 지향점은 '스탈린 주의 탈피'와 '인간적 사회주의'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들은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의 내용성을 확보한다는 논리가 생산관계의 방위로 이어져 그동안 이룩한 사회주의적 행동의 개념을 희석화시키고 자본주의의 오묘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둘째, '평화공존'의 논리가 '계급투쟁'보다 '전인류적 가치'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제3세계의 민족해방투쟁을 약화시키거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권 내부의 단결을 흐트러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 ◇글 신는 차레
1. 페레스트로이카와 한반도 주변경제 변화
 2.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4. 기간의 통일논의 정리
 5. 신대신문 시대의 조국통일론

그러나 자본주의진영과의 대립의 중심을 선포하면서 사회주의내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유도해나가는 페레스트로이카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와 자력생성의 경제메카니즘을 기본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 비관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가리등의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남한의 수교에 관해서 "남조선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두 개의 조선유도를 떠맡은 첫 사회주의국가"라고 비난함으로써 개혁이 사회주의의 우월성확보(사회주의의 진지를 포함)와 자주성의 실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

< 3 >

'동독에서의 자유총선거' '다당제의 인정' '부분적인 시적소유인정' 등은 사회주의권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도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1917년의 러시아혁명 이후 76년간의 변화보다 나이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국주의 세력의 이권다툼의 장이었던 한반도는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이며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관련학자들이 주장하듯 북한은 내부의 모순으로 민중들이 반기를 들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고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그것이 한반도정세, 그리고 조국통일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보다 인간적, 보다 민족적, 보다 사회주의적 인민정권'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 노력은 사회주의권 내부의 민중들과 제3세계 대중들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현실

우리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바라볼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체계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사회라는 것일 것이다.

즉 어느 일방에 의해 규정되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역사적 특수성과 상황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태연 동독의 경우 서독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국가와 경쟁관계에 있고, 쿠바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을 항상 받고 있으며 북

일제로 유럽에서의 실질적 군축 노력이 한반도에서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로밖에 이어지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정치 체제도 대항투쟁을 위한 민주화가 아

장을 견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치·경제개혁에 보도하지 않으므로써 제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트루먼은 89년 7월 6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은 "오늘 소련에서는 사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사회주의를 전망해보면 단기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개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거해 3대혁명(특히 사상-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민중들과 당의 일체감의 정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노선을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변화 전망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의 정치체제가 민주의 원리보다는 집권의 원리와 혁명전통이 강조되고 그에 의한 혁명노선의 끊임없는 강조속에 당에 의한 정보의 독점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북한은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할만큼 현재로서는 불만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체제를 정치경제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통일의 전망

북한은 기술개혁과 혁명법률준등으로 경제발전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접촉, 그리고 90년 신년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다 유연한 통일정책의 수립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북한의 유연한 입장을 주체적으로 수용-명중도 배타도 아닌-하고 그 속에서 남한 내에서의 자주적교류투쟁을 활성화시키고 엄중하고 있는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교류투쟁과 조국통일촉진투쟁을 대동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다.

그러고 이러한 투쟁은 지금까지 정권이 위기를 느꼈때 마다 거의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반공반북이데올로기본위투쟁과 연결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노동자자주적인 전노협탄압문제, 민중중단 탄압문제 그리고 반민주적법제배우체과 밀접한 연관속에 통일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방향으로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의적 위협을 항상 받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한국전쟁의 경험과 미국·일본의 위협속에 분단이라는 상태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은 무엇이고 다 북한사회가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에 근거한 '수령'중심의 유일자도 체계이며, 사회적으로 전시동원 체계적 성격이 짙은 통제체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성을 위해 그 전제조건인 사상적·물질적 요소의 동시적 결핍을 위해서 3대

회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사업이 심화발전되고 있으며 소비에트사회주의의 생산과정에 적극 추진되고 인민들의 복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상태와 평화보장의 여러가지 제안과 방안을 내놓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는것과 일치하고 있다" 주장했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연대와 인민의 평등을 전제로 한 성장과 발전의 논리인 현대사회주의의 개혁을 올바르게 위치를 주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변화가능성

북한이 어떻게 '북한식 사회주의'를 포괄할 것인가는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조국통일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국제정세

동구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사회의 입장을 살펴볼때 있어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인 국제정세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미국의 지배전략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알아봅시다

군산복합체

일만전의 폭특도 사건도 이러한 군산복합체세력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벗어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화학 그룹이라는 대표적 군산복합체의 확대는 소수 독점재벌기업의 강화로 인해 중·소 기업이 출도산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마비등을 초래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군산복합체는 중소기업에 영력을 확장하고 소수 재벌기업과의 결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군산복합체가 경제적인 측면에 공리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제법체력과의 제휴로 공의 상대적 발언권은 커지게 되며 이에 따른 공의 중립화가 무너지고 정치적인 개입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즉 군산복합체가 잘못 흘러갈 경우에는 견줄 수 없는 혼란상태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역문연 심포지움 가져

'민족해방운동사' 주제로 토론

역사문제 연구소는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의 현 단계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한다.

학술정보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연세대학교 기림관 원탁회의실에서 개최될 이 토론회는 본단의 현실 속에서 왜곡되어온 일제시대의 민족해방 운동사를 바로 잡는 계기 마련과 '민족해방운동사 연구' 임원의 발간을 기념하는 뜻에서 마련된다.

주제발표 및 토론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인 방 기중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순서는

1. 부조자 민족주의의 운동 발표-전우용(서울대 박사과정) 토론-박진승(서울대 강사)

2. 사회주의 운동 발표-김성보(본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김광운(조선대 강사) 공명연-김광운(조선대 강사) 이종식(" ")

3.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발표-김동환(조선대 강사) 공명연-오미일(한국역사 연구회 연구원)

토론-지수결(고려대 강사) 안태경(" ")

4. 민족해방 운동사 연구의 시작과 방법론 발표-김동춘(본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도진순(한양대 강사)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순서로 참석자 전원에게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다.

제8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0주년 및 4·19 30주년기념 '제8회 학생논문'을 제정, 여러분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30년전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의 함성으로 여운졌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19의 참 뜻을 새기며 오늘에 이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광장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본교생에 한함(대학원생포함)
- ◇분량... 2백자원고지 50매가량
- ◇마감... 4월9일(월) 오후4시
- ◇발표... 4월18일자 본지지상(제1046호)
- ◇접수... 본사 총무부
- ◇상금... 당선작 1편(상장 및 부상20만원) 가작 2편(상장 및 부상15만원)
- ◇주제
1. 4·19이후의 변혁운동을 통해 본 외세의 영향
 2. 초기불교의 해방사상
 3. 교육의 자주화를 위한 고찰
 4. 올바른 통일방안
 5. 현시기 대학언론의 위상과 역할

동대신문사

제8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0주년 및 4·19 30주년기념 '제8회 학생논문'을 제정, 여러분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30년전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의 함성으로 여운졌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19의 참 뜻을 새기며 오늘에 이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광장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악선전, 중상모략 즉각 중단하라!

작금 발견되는 괴문서, 정체불명의 투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존경하는 ○○님'으로 시작되는 투서

작년 외대, 서강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과행적이고 왜곡된 광고질서를 극복하고 대사회에 걸맞는 전향적 광고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광고질서회복운동」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숭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질서회복운동」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광고지면을 이용주주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악덕기업의 추방이라는 결코 올바른 형태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광고혁신을 통한 지면혁신의 관점에서 아울러 독자대중을 신문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는 매체혁신의 일환임을 재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결과로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회(이하 서대기련)악덕기업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게 이르렀으며 이제는 단순히 개별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좀 더 좋은 신문, 모든 대학인들로 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위한 노력이 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고질서회복운동」을 근거없는 논리로 악선전하고 심지어는 대학신문을 일반적으로 비방하는 정체불명의 투서, 문건이 나오고 있어 이를 독자들에게 공개,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이는 공대위 명의인것처럼 암시하여 각대학 학생회장, 주간교수님 앞으로 광고일서(공대위 광고 자료집)와 함께(주)나래기획 부를 사용하여 발송되었다고 하며 현재 중대, 이대, 한대등 몇몇 대학에서 확인되고 있다. 투서의 내용은 모든 진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받는 당사자에게 당혹감과 불쾌감을 줄 정도로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나래기획과 대학신문을 불순분자인것처럼 악랄하게 매도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기자들 사이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대위에서는 결코 이런 유형의 파렴치한 행위를 한 적이 없

2. 한양대에서 입수한 불명의 참고자료

이는 지난 2월 28일 한대신문기자들이 학교측과 광고문제 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간교수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이다. 25페이지 분량으로 되어있는 참고자료는 (주)나래기획의 탄생배경부터 나래기획과 대학신문과의 관계, 광고대행권의 전락과 문제점 등의 순서로 다방면에 걸쳐 나름대로 제법(?)논리,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구적이며 (주)나래기획과 학교당국, 학생기자들이 이를 간질시킴으로써 의도도 작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대학신문과 관련된 일부를 발췌하여 보겠다. 「...대학신문을 통한 그들의 이념과제는 이러한 기능을 외면한채 대학언론을 완전히 그들의 수중에 두면서 민중혁명론을 부추키며 친북한 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으로 전락시켜 매체의 세뇌화를 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를 일반국민에 까지 연결시켜 그들의 목적달성에 동참케하며, 결국에는 민중봉기를 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기도하는 운동론의 이념지화 하기위한 전초로 광고대행권을 장악하고자...」

지면관계상 결론부분만 인용하였지만 몇마디의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악의에 찬 비방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 나아가 독자들의 「알 권리」자세를 부정하는 그들의 작태에 대해 또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왜곡과 날조도 서슴치않겠다는 그들의 파렴치한 속성에 분노를 느낄 따름이다.

이에 서대기련 소속 31개사는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광고질서회복운동과

대학신문을 중상모략하는 이들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는 기자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대학신문을 사랑하는 독자와 특히 학교당국의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3.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

대학신문의 역사는 민족민주헌정실천을 위해 지난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는 독재와 매관매찰에 맞서 오직 「민중민주 참언론」실천으로 독자의 「알 권리」에 충실하기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또한 「원고작성」, 「제작지침」등의 외부의 끊임없는 탄압의 칼날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다.

작금 대학신문의 변화를 마다며 더욱 더 사랑받는 신문으로 올라서기 위한 몸부림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절하는 신문」을 혁신해서 「입히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현 시기 대학신문의 최대목표라던, 광고지면에 있어서는 광고질서회복운동을 통해 3분의 1의 지면을 지면의 주인인 독자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혁신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 임무인 것이다.

이속에서 광고질서회복운동에 기본적 목적에 동의하고 광고지면을 혁신하려는 기자들의 의사에 조응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대행사의 육성발전은 대학신문 혁신운동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하겠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며 결코 물의가 정의를 이긴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잘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민족민주헌정의 추종들로서 손색이 없도록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통일염원46년 3월 11일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 연합회

학우대중 이끌어 내야 '참문화패'

— 서울·경주 단대문화패를 찾아서

서울캠퍼스

대학구성원들에게 기존의 사회현실에 왜곡된 전파되어지는 문화를 타파하고 건강한 공동체적 문화를 인식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은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문화부가 맡은 책임이라 했을 때, 문화부활동의 중요성은 자연히 부각되어진다.

그 이유로는 '어떤 노래를 왜 불러야 하는가'라는 자기고민이 과차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급급했고, '어떻게 불러야 한다'는 전문성취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각기 '파'라는 틀속에서의 고립된 사업진행으로 단대사업과의 연계가 맺어지지 못했다. 현재 야간강좌에서는 단대 노래 '그루터기'가 88년도 결성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반주부장을 따로 두는 등 전문성

못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작년 학법제에서 보여줬듯이 과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단대사업에는 참가를 회피하는 잘못도 보여진다. 이는 문화부 인식의 변화가 원천히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비해 본교내에서 비교적 문화부체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문과의 경우 과특성을 문화부와 결합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 시문과, 소설문과, 희곡문과 등으로 구성된

무원적인 자기만의 사업이 아닌 다른 부와의 연립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일종의 행사위주에 아닌 꾸준한 고교와 학습을 통한 내용성의 담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각 문화부들이 전체 문화운동을 담당하려는 성급함보다 노래를 노래로, 풍물패는 풍물패라는 매체의 특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기용기자)

행사위주 '문화패' 운영 지양돼야 과·단대 연계로 공동체문화 실현할때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동아내의 각 문화부현황을 살펴보면 구성원들의 문화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내면서 생활속의 문화운동으로 체화시켜내는 것보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모임을 간주, 모임자체를 단순화시켰다는 오류들이 발견된다.

그 실태로 작년까지의 야간강좌에는 7개학과중 5개학과에 노래패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작년 한해동안 일률적인 행사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탈퇴해 영문과를 제외한 노래패가 위태되어 버렸다.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야간강좌 문화부장 최옥선(영문3)은 "과단위의 노래패 연합을 꾀해 광범위한 대중을 인입해 오며, 참된 공동체 문화를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이후 사업방향을 밝혔다.

또 사범대에서도 가교과 노래 '어머니' 국교과 노래 '달라성' 등 5개과에 풍물, 노래패가 있지만 그 활동상황은 미약한 상태이다.

노래나 풍물패를 이끄는 각 패장들을 살펴보면 노래패장이 거의 대부분 풍물패장을 겸임하고 있어, 성원들의 문화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장작부와 기존의 문화부가 문학예술부로 절집, 각자의 고립적인 사업진행을 방치하고, 서로가 연관된 공동체 문화를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그 예로 작년 시낭송대에 풍물패와 노래패가 참여,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오는 5월에 각 분과가 연계해 절집극 수준의 기획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행사위주의 사업작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운동이론을 중심으로한 문화제나를 실시, 문화운동의 내용성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처럼 각 문화패들은 고립

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각 단대 문화패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제외한 단대는 단대차원의 문화패로 전무한 상황이다.

인문·민중성을 바탕으로 창조성과 기존사회의 왜곡된 퇴폐·향락적 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대학문화의 이념과 과제이나 현재 경주캠퍼스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문화 및 문예운동의 주체들이 없어 본격적으로 문예운동 또는 문화활동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鄭 址 鎬 (사범대교수·수학사)

달하나 千江에 아집을 버리자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한국사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다. 일제하의 36년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고 평행이후 밀어닥친 서구 문화는 유교에 바탕을 둔 우리의 전통문화에 변화를 가져와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하여 조국 근대화란 목표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잠잠해보세"라는 기치아래 이룩된 경제개발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와 황금 만능의 물질주의를 팽배하게 하였다. 근대와 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경험한 경제적 성취와 불균형, 정치적 격동과 좌절,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가치질서의 혼란 등은 1980년대에 들어와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발전은 기적적이라 할만큼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적 발전 기반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근대화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주로 물질적 가치적인 것들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가치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 모두의 갈등의 골은 한없이 깊어만 갔던 것이다.

이제 때 이르러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며 냉정을 잃지 말고, 무릎을 꿇고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어렵고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위해 각자가 제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늘을 우러러 한심 부도 않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

지난 1월22일 '전국노동자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이제 이 땅의 노동자들은 하나되어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5공정산과 동시에 하루이침에 손을 잡은 반민주 세력은 민자당 결성을 통해 독재정권의 유지에 혈안 되어 있고 아직도 사회 환구석

부당해고에서 법정투쟁 승리까지

이렇게 모여 일하고 있다. 주요활동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상담과 교육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담은 부당해고, 미지급수당, 산업재해와 관련된 개별 노동상담과 위장제업, 단체협약, 노조의 일상활동과 관련된

은후 축소무책인 상태에서 하소연을 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활동에 활발히 참가하여 회사측의 눈밖에 나가게 된 노동자들이이다.

또한 분별, 산업재해를 입고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현황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상담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노조 활동을 하던 한 노동자가 회사측으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해고 처분을 받고는 생계가 막막하던 차에 노동인권회관에 상담을 요청, 상담원들과 함께 1년여에 걸친 법정투쟁을 통해 드디어 해고가 무효임을 판결 받아 1년간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어 일부의 돈으로 복사를 구입해 회관 사무실에 기증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모병된 노조가입 간호사들은 병원측으로부터 월급의 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원들과 상담을 통해 '미지불임금청구'를 법원에 제출, 이 또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미지불임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담활동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파를 거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의 조직 일반 원리에 대한 강좌, 노동법에 관한 강좌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다.

한편, 회관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이다. 특별히 도와주는 후원단체가 없이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내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동인권회관을 찾아서

에서는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1천만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있다.

지난해 10월 구로동에 문을 열어 아직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구로공단 2천여 노동자들의 상담과 노동교육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 나가고 있는 '노동인권회관(소장 박석원)을 찾아 보았다.

이 인권회관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친 성고문사건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권익옹호가 그돈으로 처음 문을 열게 되었으며 지금은 뜻이 맞는 10여명의 회원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상담과 노동교육을 활발히 전개

노동조합상담원이 있다. 이러한 상담을 하기위해 직접 찾아오거나 혹은 전화로 상담을 해오는 노동자들은 주로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인해 하루이침에 일자리를 잃

서도 회사측의 발발으로 인해 '개인부주의사고'로 처리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한 상담도 상당히

"해고무효 판결로 1년간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사무실에 복사를 기증했을때 가슴 뿌듯.

육, 노동법강좌등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한달간 열렸던 '역사교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피정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 인근 구로공단 주변의 노동자 2백50여 명이 모여 강좌를 듣는 큰 성

업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인권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동인권회관이 올바르게 그리고 활발하게 굴러가게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위력이 뒤따라야 할 예정이다.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고 함께 법정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이라는 말을 들어, 아 하며 홍보활동이나 계속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전적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말제자는 "계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것은 바로 노동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 뿐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바로 이나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역사적식을 노동자 자신이 인식해 스스로 품게 하는 길 뿐이다"라고 피력한다.

계속되는 탄압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제 몫을 찾아 나가고 있다. 노동인권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몇몇 상담원들이 해야 할일은 아니다.

이제 우리모두가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이바지는 상담원들이 팔에 이땅의 진정한 '노동해방'의 그날은 찾아올 것이다.

(최윤옥기자)

동약광장이 새롭게 바뀝니다!!

게시판 역할을 하던 동약광장이 보다 대중적으로 변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실속있는 동약광장에 여러분의 많은 이용, 관심을 바랍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지?

우리 향유회 뒤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전할 방법이 있을까?

내생일 축하가 신문에 나왔네? 생일 선물 이야.

동약광장의 광고문은 본사 (2194) 문화부로,

모니터요원을 찾습니다!!

우리 동대신문사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전 동약인의 경험을 선명한 동약인의 목소리로 신고자 모니터제도를 도입,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체로 신고자 하는 전동약인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타 모니터제도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은 본 동대신문사(직통전화 267-8577, 구내전화 2194)로 연락하십시오.

우리의 신문이라면 나도 참여할수 있을까?

한번가보자.

와~ 기사취재, 신문평가, 그리고 세미나 까지 기획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의견도 신문을 통해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지?

모니터요원은 교수, 학생, 직원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동대 신문이 보다 대중적으로 뿌리 내리 겠구만.

취재하러 가자!

밀바닥 인생소재로 리얼리즘 추구

장선우 감독의 '우묵배미의 사랑'



‘우묵배미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우묵배미’라고 설정된 남곡이 서울전두리의 수족, 일산, 능곡동의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는 작가 박영환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공간적 배경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아나갈 터전이라는걸 알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계를 둘러 볼때 밖으로는 미국UPP적문제와 관련된 거대영화제작자의 침투, 그에따른 영화산업, 영상문화의 대중화속성이 가속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묵배미’가 주는 감동은 우리의 영화가 모색해야할 화로를

소제본권을 극복하고 리얼리즘의 큰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묵배미...’는 출저리상으로만 보면 구성인물이나 공간적배경이 전형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내용도 흔하 들을 수 있는(그렇다고 옳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소외와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배일도(박종훈

된다 이야기이다.
이 영화의 감독 장선우씨의 “도시와 농촌, 변혁과 전통,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상징으로서 ‘우묵배미’를 배경으로 분노와 좌절이 해학과 농성으로 뒤엎기는 그런 사랑을 그려보려 한것이다”라는 말에서도 보이듯이 배일도와 민공래의 사랑은 불륜이면서도 우리가 흔히 예

주는 것이다.
그리고 원작에의 충실성, 음악의 독자적인 세계구축과 통일성확보등은 이 영화를 이전의 영화를 한단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배놓고 볼수 없었던 부분은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영화답게 배우들의 진지한 자재이다.



동시녹음등 영화기법상의 충실함 돋보여

적절히 제시해준다 할수 있겠다.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영상매체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때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리얼리즘’의 문제이다.
‘우묵배미...’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앞서 말했듯이 허황한 애정영화나 사회구조적 모순을 등한시한, 그러면서 영상문화를 이끈다고 하는 탐미주의적 발상에 맞서 ‘우묵배미’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밀바닥의 인생을 소재로 비현실적인

분)는 시골에서 뛰쳐나와 갖은 고생을 하며 현재는 마장사점 제단사로 일하고 그의 마누라인 새래(유해라)역시 제모의 구박을 피해 어린나이에 산골에서 내려와 식도술집작부생활을 두루거쳐 우연히 배일도와 만나 살다가 놀러 않는

기하는 불륜과는 다른 깨끗한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신선함과 동시에 충격을 던져주는 또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영화기법상의 충실함이다.
우선, 이 영화는 동시녹음방식을 택해 현실의 생생한 소리를 그대로 맛볼수 있게 한다. ‘발레하는 소리’, ‘새우는 소리’, ‘따라맞는 소리’등 모든 소리가 속에서 우리가 향상을 고사하는 소리를 촬영현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에게 그대로 들려

성의 상품화만연에 한몫

방송국만의 잔치인 MBC올스타쇼



하지만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배우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박장대소함이 도대체 나와, 우리의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을런지 자못 궁금하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출연진중 텔런트에게 노래를 시키려는 한쪽 면에서는 있다는 빛깔이 노래가 다 끝날때까지 우스꽝스러운 게임을 진행한다.
노래 틀으라 게임 규정이라 시청자들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며 카메라는 이쪽 저쪽을 쫓는다. 도대체 그렇게 산만하고 정신없는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시청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수 있었는가?

그리고 게임에는 거의 배놓지 않는, 비슷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출연진중 보기에 그럴싸한 미모의 여자 텔런트나 영화배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폰서위에 놓고서 흔들며 떨어뜨리는 게임이다. 이것이 마치 여배우들을 감상(?)하는 차원의 저속한 놀이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쯤 분사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어 있는 때라고 하지만 일요일 한낮의 TV프로그램에서조차 긴장성을 거의 찾아볼수 없는 내용의 오락물이 화면을 메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TV는 대중매체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영화배우, 가수, 텔런트들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매일같이 꼬리따분한 정치얘기나 철학만을 이야기 하는 교차적 내용을 보여줄수도 없다.

그러나, ‘대중’을 이야기 하고 ‘대중’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쿼츠나 가벼운 게임등의 건전한 오락물을 만들수도 있을것이다.
그 수준을 이야기 하지 않고서라도 ‘올스타쇼’와 같은 일박 쇼프로그램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잔치(?)’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 인기있는 영화배우, 가수, 텔런트, 개그맨들이 매주 바뀌면서 TV화면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정 치학을 연구하는 다 보면 요즘엔 ‘엘리트주의’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엘리트주의의 어원 엘리트란 사회구조의 유지,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 일컫는다. 엘리트의 종류에는 정치권력을 가진 장관급등의 파워 엘리트, 문맹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경제엘리트, 성철종정, 김수환 추기경등의 상징적 엘리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군부엘리트도 포함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엘리트는 자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인정하는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 금 동안에서는 총학생회선거와 민주총학생회임과 더불어 각부처의 보직인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민주총학생들은 총장선거가

‘엘리트’신드롬

결정됨으로써 어느새 관심이 시들해 갔고, 보직인사도 총학생회 당선자바람이 불기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머리에서 희미해졌다. 이 모든것은 동국의 앞날을 예견하고 대중의 정서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내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엘리트는 아니다. 세 인들은 장영자나 김현희등을 결코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도 이는 명약관화하다. 3월에 동아울을 품미하는 사건들은 한결 같이 동국의 엘리트를 뽑는 일들이다. 총학생회장은 전학생들을 선출할수 있어야 하고 민주세력

맑음



최경인 (12)
독일의 통일 전망이다...
그리곤 성직위주의 경제정책...
고교내, 동맹문자에 한 거까지...
올해 봄도 무척 뜨겁겠군

로그그램들은 태반이 눈요기에 그치는 식의 내용 이상의 것은 없는 실정이다.
이젠 올바른 대중매체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TV매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최운옥 기자)

문화단신

‘유리그림전’
서울 워커히 미술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리그림전’이 열린다.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등등 12국의 유리그림 1백96점 이 전시된다.
‘영웅만들기’공연
극단 ‘미추’는 오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김지일 작 손권혁 연출로 창작뮤지컬 ‘영웅만들기’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동학의터

옛날엔 명당이었다는 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가 동학(동원)에 자리잡게 되는 배경은 어떠했을까? 동학은 어떠한 터였나? 또 경주캠퍼스가 석장동에 자리잡게 되는 배경과 일명 은방골은 어떠한 곳일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증을 품어 보았을 것이다. 이에 동학인의 궁금증을 다스리나 풀어주고자 ‘터의유래’를 알아보았다.

백당 이색종 조선초기 한문학을 대표하는 당대의 학자들이 배출된 곳이다.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말갈밭’이라는 수필집에 나오는 교정교정한 단산골 샌님들이 기거하던 곳은 현 회현동 일대라고 전해진다.
서울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필동은 일제시대 때는 교서관(현재로 말하면 출판국)이던 한국의길 자리, 주자소(활자를 만드는 곳)이던 필동파출소 자리,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권을 본교에서 이양받고 동본원사(현 사범대학건물)에 위치해 있었을)동도 이양함으로써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가 동학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진형기자)

기도 금강대에서는 쉬어간다는 ‘금강낙안(金丈落雁)’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경치가 수려한 곳이다. 경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금강대에는 신라시대때 경사가 완만하여 왕과 신하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는 얘기도 전해지며 작가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에서는 ‘에기소’로 등장하기도 했다.
동학이던 석장(錫丈)은 승려가 짓는 자방아를 일컫는 말로써 본교가 위치한 석장동의 서북쪽에 통일신라시대의 절인 석장사와 그 절의 주지였던 양지스님의 석장에 얽힌 설화가 전해내려와 석장동이라 칭하게 되었다.

서울 - 조선초 '이색' 등 대학자 배출된 곳

경주 - 동학의 경지인 구미산 '은방골'

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동학(동원)은 고려시대에는 동경 구개의 터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초기에 능선 구개의 외손인 덕수 이씨가 이 터를 물려받으면서 덕수 이씨의 경지(서울)가 되었다 한다. 당시 풍화에 터를 잡고 있던 덕수 이씨 가문에서는 용재 이항, 그 중손인 동학 이안눌,

우리학교 서울캠퍼스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본교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당시 교사는 현 해화동 보성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었음)가 8-15이후 동국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부터였다. 전 문학교에서 일반대학으로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현 민회 광장에 위치해있던 교서사(경각원은 당시 조계사법당이있음)에 대한 적산관리

법안이 있는 곳으로 본교의 삼면이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본교의 정문앞에는 행선강의 지류인 복천(알천)과 서천이 만나는데 풍수지리학상으로 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을 명당으로 일컫고 있다.
이 서천과 복천이 만나는 곳에 ‘해기정소’라고도 불리우는 금강대가 있다. 금강대는 ‘날아간터 기러

기러기가 있는 곳으로 본교의 삼면이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본교의 정문앞에는 행선강의 지류인 복천(알천)과 서천이 만나는데 풍수지리학상으로 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을 명당으로 일컫고 있다.
이 서천과 복천이 만나는 곳에 ‘해기정소’라고도 불리우는 금강대가 있다. 금강대는 ‘날아간터 기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675-6181~3)

법안	항목	비판 및 대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①별도의 소정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문교부가 사학의 자율성까지 침해해 기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사 징계를 강요하는 현실을 볼 때 문교부내의 소정심사위원회 설치하는 교원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장치보다 교원 징계를 정당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원의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교사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교원 징계 위원회, 재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징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보수의 무대	시행에 위한 구체적 제도 장치나 강제력을 담보하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현행 교육법속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별도의 특별입법이 필요없는 것이다.
	③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	협의와 건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할 뿐더러 대한교원(한교총)에만 주어져 있어 교총의 이용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 문교부 주관의 한교총만을 인정하고 교사 단체는 교총의 산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교사의 다른 자주적 모임(단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①공개전형에 의한 교사신규채용	“국립대학교의 차별을 철폐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이라고 화려하게 치장되고 사립사대에 대한 미끼로 위장된 것이다. 이는 교사 적체현상을 개인에게 돌리고, 비판적 교사를 배제하여 정권에 순응하는 교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간속시켜 사립 사립 구별없이 희망자를 전원 발령하는 의무발령제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우수교사의 확보는 교사를 통한 선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우수한 학생이 사립대를 지원하도록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②교장 임기제	교장 직선제 없이 현행의 자격규정을 그대로 둔채 문교부장관의 재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될 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교육 방송공사 설립법	제9조: 문교부장관의 재정보조	내용과 운영을 정부가 장악하여 교육내용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세출입 결산을 할 수 있는 등 문교부의 예속기관이 되어 독립성이 배제되어있다.
	제8조: 문교부장관이 이사 중의 80% 임명	국정 경인정교과서에 의해 정부가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방송공사의 설립으로 시청각교육내용까지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는 것은 방송체제가 갖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방송내용이나 운영을 정부가 관장	제17조: 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함
		현제 공무원, 공직직원에 있어서 방방대 학위는 승진, 승급에 반영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방방대 출신의 취직길은 거의 봉쇄돼 있을 뿐더러 지방대 졸업자의 경우 서울 진출도 어려운 형편에서 독학취득 학위법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많은 국민을 우용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를 입시 교육화시키는 것이며, 학위취득에 대한 욕구는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의 해소,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개선등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때 사라질 것이다.

교육관계법개악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